

◀기쁜 우리 날들▶ 쉬고 싶은 남편, 말하고 싶은 아내



역구를 경제 속을 헤집고 다니는 남자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피곤하다.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남자들은 건드리면 바로 터져버리는 부비 트랩이다.

피곤한 남자들은 백 년 동안 잠자는 숲속의 왕자가 되고 싶다.

하루 종일 아이 뛰치다꺼리 집안일에 지친 아내도 남편처럼 쉬고 싶은 건 피차일반이다.

남편은 침묵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아내는 말로 스트레스를 푼다.

이미 지칠대로 지친 남편은 아내의 비생산적인 수다가 귀찮다.

아내는 도덕 교사나 재판관 남편을 원치 않고 애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같은 남편이길 원한다.

남편이 아내 말에 사사건건 트집 잡고 아내를 피고인 취급해 나무라는 남편에게 흑 떼려다 흑 붙인 아내들은 그만 상처를 입고 만다.

남편들이여 내일의 성공보다는 당장 오늘 내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라.

어려울수록 힘든 때일수록 서로 많은 대화를 해서 쾨켜이 먼지처럼 가슴에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풀어 주어야 한답니다.

남편들이여, 피곤하더라도 웃는 얼굴로 아이처럼 조잘대는 아내의 얘기를 잘 들어 주도록 하시라.

영리한 아내는, 되로 받은 사랑을 말로 갚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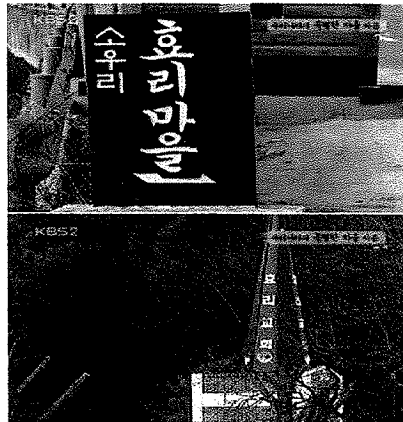
재비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 주어서 여자들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고.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막아 버려서 아내의 마음에 깊은 원망과 불평이 쌓인다는 걸 남편들이여 한시도 잊지 마시라.

◀이런 이름▶ 효리마을의 효리교회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만이 있을 것 같은 경북 영천시 북안면 효리마을과 효리교회.

이젠 불혹이란 말조차 생소한 지금 이 나이의 자리는 성공한 사람의 외모가 아름다워 보이던 나이에서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2 경북 영천시 북안면 효리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8권 2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6월 18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수도자의 기도와 농부의 기도



신앙이 매우 깊다고 여기는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 보라 그래."

그는 늘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수도자를 꿈속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챙겨 떠나라. 나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농부를 만날 것이다.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가 나를 섬기는 법을 배워라."라고 하셨습니다.

수도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 낮과 밤을 걸어서 농부를 만난 수도자는 농부로부터 잠자리를 대접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기도하던 수도자는

"저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기에 나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라 하시는가?"

그런데 사흘동안 지켜 본 농부의 아침 기도는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마치고 돌아와 식사를 한 농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 또한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이 무사히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수도자는 거의 하루 종일 기도만 했습니다.

"아니, 하루 두 번 기도하는 저 농부에게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내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수도자의 이런 생각을 알아차리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를 꿈속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팔린 식구도 없다. 그래서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집주인인 저 농부를 보아라.

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진 저 농부는

그래도 매일 두 번씩이나 나를 기억하지 않는가!"

◀말씀따라 행하기▶

믿음이란
아직 어두운 새벽에
노래하고 있는
새와 같은 것.

◀인품따라 행하기▶

사교적인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남이 가르쳐 주더라도
아무 소리 말고 배울 것.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책감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47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0(시91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432장	다 같 이
기 도 Pray		이규임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19:26-27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12제자 연구(3) "고집스러움에서 사랑으로. 요한"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10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6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헌금위원	차량	안내
28	김영길	강은미		본당: 김순자 정희자 현관: 김교섭 장현중
4	박일영	강현정	정덕수	
11	이광희	구미희	김교섭	
18	이규임	권용일	이광희	
25	이재영	권정호	박일영	

◆6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4	성령강림주일 성찬주일
11	믿음의어머니기도회(13) 피택자교육(16)
25	이삭줍기주일

『교회 생활』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5시

1. 교우소식
* 많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조심 하십시오.
2. 모임: 3, 4 여선교회 정기월례회
* 4여선교회(1962년~1965년생) <일시> 23일(금). 오전 11시.
<장소> 정혜숙 집사 자택. 14A Haast St. Remuera
* 5여선교회(1966년생~) <일시&장소> 19일(월) 낮12시. 이수은 집사 자택
<주소> 70A Braemar Rd. Castor Bay
3. 『3여선교회 주관 성전건축기금을 위한 산채비빔밥 나눔 판매』 <가격> \$10
* 오늘 저녁은 \$10로 온 가족이 저녁식사를 즐기십시오. 집에서는 뜨거운
이밥만 지어 비벼 드실 수 있도록 산채나물을 3여선교회에서 다듬고 샐었습니다
4. 마오리교회 창립125주년 기념 Festival(예고) <일시> 6월24일(토)-7월1일(주일)
* 우리교회와 Fijian교회 성가의 밤 <일시> 26일(월) 저녁 7시
* 나무십자가성가대의 수고바랍니다. 익투스남성중창단도 함께 참여합니다.
5.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7:30분>. 『민수기 강해』
* 일찍 어두워져 늦은 밤 같은 시간, 찬양과 말씀이 있는 예배당에서 의미있
는 시간으로 누리보십시오..
6. 21일은 "동지"(the shortest day of the year), 이제부터 뉴질랜드의 춥고 습한
겨울이 조금씩 물러나겠지요! 그것은 수선화 피는 봄도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착한 시인▶ 홀로 서기

서정운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
변명하지 않으며 살고 싶다.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혼자가 되리라.
그 끝없는 고독과의 투쟁을
혼자의 힘으로 견디어야 한다.
부리에.

발톱에 피가 맺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술한 불면의 밤을 새우며
홀로 서기를 익혀야 한다.

한동안 시의 첫 구절 만으로
가슴 설레며 읊조리던 때가 있
었습니다. 아마 누구를 짝사랑
하는 마음에 빠져 있을 때 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
다림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님
을 알겠습니다. 좋은 날씨를 기
다리고 월드컵을 기다렸고 좋
은 날이 오기를 기다림이 서로
날줄과 씨줄이 되어 짜여지는
게 인생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다림은 좋은
것들을 바라는 것임을 알겠습
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나의 마지
막 날, 미처 식지 않은 땀도 그
냥 둔 채 이제 쉬게 하여 주셔
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 그
날로 기다리겠습니다.